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

### 찬송

찬송가 89 장(통 89 장) 사론의 꽃 예수

찬송가 109 장(통 109 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15 장(통 115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1. 여는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든는지 자유롭게 진지하게 나누어 봅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강해지면,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 본문 : 마태복음 1:23 /이사야 7:14

### 2. 본문 이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모든 삶과 사회의 유일한 구심점이 되는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 종교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하고만 함께하신다."라고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7:14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앗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앗수르 제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해서 앗수르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했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앗수르 제국이 침략해 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 장 14 절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천사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입니다.

### 3. 말씀 속으로

#### 1)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지만, 또한 누구와도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도, 심지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동시에 서로의 같은 점을 찾아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 4. 삶 속으로

####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만의 편이다.'라는 믿음으로 바뀐 적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하고만 함께하신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될 경우에, 신자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움에서 지는 것은 나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하나님의 정의가 패배하는 것)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쟁은 끝까지 가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서로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2)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간증들을 나누어 봅시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 제국의 침략과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심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봅시다.

## 5. 암송 구절 :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6. 자녀와 나눔

1)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이야기를 자녀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물 위로 오라 하소서

### 찬송

찬송가 400 장(통 463 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56 장(통 509 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539 장(통 483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1. 여는 질문

여러분의 재물과 지식, 경험과 능력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찾습니다. 물질, 사람, 권력, 경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큰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모습인지 나누어 봅시다.

\* 본문 : 마태복음 14장 22-33절

### 2. 본문 이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깊은 밤에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배 밖의 상황은 폭풍이 치는 어두운 바다입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비교적 안전한 배 밖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새로운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방해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작은 배가 폭풍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배 안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배 밖은 폭풍이 치는 위험한 바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계십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뛰어내려야 할 배는 무엇입니까?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는 세속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숨어있지 말고, 폭풍 치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 3. 말씀 속으로

1) 인생의 고난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폭풍이 치지 않는 평소의 바다에서는 자신들의 힘과 경험과 노하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세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폭풍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폭풍 치는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해도 폭풍을 만날 수 있고, 순종해도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삶 속으로

1)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면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이라면 한밤중이라도 충분히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안전과 평화,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어부들의 실력도 튼튼한 배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돈과 권력은 결국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줄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베드로처럼 비교적 안전한 배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내려야 할 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도전과 모험은 무엇입니까?

5. 암송 구절 :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 6. 자녀와의 나눔

- 1)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도전과 모험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찬송

찬송가 214 장(통 349 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302 장(통 408 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15 장(통 512 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1. 여는 질문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반대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어 서운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의 기분도 나누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보다 큰 보상이 주어지면 좋아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력보다 보상이 적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노력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꼭 그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그런 각박한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사랑과 은혜라는 기준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고 감사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의 노력과 보상에 견주어보고 나누어 봅시다.

\* 본문 : 마태복음 20 장 1-16 절

## 2. 본문 이해

추수를 앞둔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오전 6 시경)에 일꾼을 다 구한 포도원 주인은 제삼시(오전 9 시)에 다시 나가보았더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육시(정오), 제구시(오후 3 시), 그리고 제십일시(오후 5 시)에 나갔는데 역시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십일시(오후 5 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일꾼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온종일 일한 일꾼의 마음속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은 임금을 준단 말입니까?"라며 불평했습니다.

세상의 기준 즉, 노동과 보상이라는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노동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마 20:1) 이 이야기 속의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장터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실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모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력도 배경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그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다면 일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은 사람의 능력과 배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3. 말씀 속으로

1)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을 한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전 6시에 모두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력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많은 사람은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고,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 날은 가족이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하고 싶고, 또 일해야만 하는데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밥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의 품삯을 다 준 것입니다.

2) 내가 만약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온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또, 내가 만약 오후 늦게 나와 한 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수고한 사람들과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을 때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과 오후 늦게 나온 사람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같은 임금을 받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 나온 사람은 일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같은 임금을 받으므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에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기대에 따라 보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른 아침에 나와 더 많이 수고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오후 늦게 나와 적은 수고를 했기에 당연히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 4. 삶 속으로

1)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았고, 실력도 능력도 부족한 일꾼들은 오후 늦게 주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하나님의 부름(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마지막 오후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포도원 주인에게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주인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받았습니. 그런데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교는 원망과 불평의 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후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죄 많은 나를 마지막 오후 늦게라도 불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신앙은 비교를 통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감사와 감격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5. 암송 구절 : 마태복음 20 장 7 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 6. 자녀와의 나눔

1)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임금을 나누어 주었는지 자녀들과 나누어 봅시다.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찬송

찬송가 288 장(통 204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365 장(통 484 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428 장(통 488 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1. 여는 질문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오신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불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짐을 벗을 기회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본문 : 마태복음 20 장 29-34 절

## 2. 본문 이해

본문 말씀에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평소처럼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고, 오직 구걸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일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쯤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시각장애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자,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31 절)

마을 사람들이 두 시각장애인을 꾸짖은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마을 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너희같이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 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큰맘 먹고 용기를 내고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예상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한 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눈 뜨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들이 거지 신세가 되어서 구걸을 하게 된 이유도 눈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직장을 얻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차별받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꾸짖음을 들었을 때, 더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사람대접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직업 때문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사람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됨의 회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 3. 말씀 속으로

1)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믿음의 방법으로 다한 후에, 그 결과를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처럼 소리쳐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2)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상황이 더 나빠진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당신의 죄값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맘 먹고 교회에 갔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용기를 내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 4. 삶 속으로

1) 여러분께서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봅시다.

앞을 볼 수 없다는 인생의 결핍과 고통이 두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만약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모욕을 참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사람이야 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2)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눈을 뜨게 된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더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억울함과 서러움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보상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암송 구절 : 마태복음 20 장 33 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6. 자녀와 나눔

1)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